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복음 1:18-25)

대강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는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탄생에 대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주님의 족보와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1)** 이 말씀 바로 뒤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 대,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까지 14 대의 족보를 상세하게 밝혀 족보와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1:16 절에 대한 자세한 각주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태복음 1:16)**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요셉의 관점에 푼 것이 마태복음이고, 사건을 마리아의 눈높이로 바라본 것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마태복음 1:18)”**

마태복음 1:16 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번졌던 의심에 찬 소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대 교회의 신앙고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v.23a, 이사야 7:14 인용)**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7:14b)**

같은 말씀이지만 이사야서는 마태복음의 '동정녀'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젊은 여인'을 뜻하는 처녀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본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즉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임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인한 잉태소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v.20b)**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렸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와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는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천사의 말의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떨궈 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쉽게 닫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매몰 당하면, 곧 이어 걱정과 의심이 몰아쳐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하며 의심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관대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 내기보다 조용히 품어 줍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v.19)** 성경의 기록처럼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약혼녀의 혼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구약성서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두 사람 모두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경고 합니다. (신명기 22:23-24)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한 후에 율법대로 약혼녀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파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이라는 천사의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당시 관습대로 요셉은 두 명의 증인을 세워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 주었을 것입니다. 이혼증서를 주고 마리아가 정을 통한 남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입니다. 요셉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관대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이런 관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v.24-25a)**

요셉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니다. 머리 속에 정리가 다 된 후에, 논리적으로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곧장,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임신한 처녀' 데려와 아내로 맞는 일, 조금 더 신중해야 할지 모릅니니다. '성령으로 인한 임신'을 누가 믿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니다.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이 찰나의 시간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니니다. 복잡한 방정식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순종입니니다. 때문에 순종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의 관대함과 순종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v.18),**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v.20)**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긴 암흑기가 존재합니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더욱 더 짙게 드리워질수록 찬란한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지만 말씀만 붙잡고 전진할 때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 지려면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별떡 일어설 수 있는 두 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두 손이 필요합니니다. 순종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니다. 순종하려면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니까?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상식과 이성의 울타리를 넉넉히 훌쩍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다.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름입니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살피 주시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82 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마태복음 1:18-25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망설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만약 내가 '임신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요셉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 요셉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니까?
  4. 매일의 삶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음 속회에서 함께 나눠 보십시오.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191 장 내가 매일 기쁘게)
- 주기도문